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고향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634 진정한 고향.....	3
7680 귀환의 축복.....	4
8400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혼.....	6
5617 아버지의 집과 축복.....	7
5666 빛의 나라의 축복. 기쁨과 환희.....	8
0977 빛의 상태.....	9
4578 영의 나라의 축복.....	9
7963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일.....	10
2415 “사람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다.”.....	12
2233 하늘의 축복과 행복.....	12
1792 천상의 축복. 영원한 영광.....	13
2284 하늘의 영광. 영적으로 보는 일.....	14

진정한 고향.

B.D. No. 7634

1960년 6월 27일

영의 나라는 실제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른 영역이다. 만약에 사람이 아직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두 나라는 전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이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려는 의지가 진지할수록 이 나라는 실체가 될 것이고 항상 더욱 영의 나라가 자신의 실제 고향이라는 느낌을 갖고 이 땅은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가는 짧은 기간을 가진 사라지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의 영역은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항상 또 다시 싸워야만 할 것이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생각으로 세상을 도피하고 영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기 위해 강제를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자신의 진지한 의지라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로 인한 사랑의 삶 한 가지가 그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면 인간의 혼은 이미 영의 나라의 뿌리를 내린 것이다. 왜냐면 올바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다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한 사랑인 올바른 사랑이 존재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아직 자기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는 세상나라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에게 영적인 세계는 믿지 못하게 보일 것이다. 그에게 이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멀리 있어 그로 하여금 이 세계와 연결을 구하게 자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보이는 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는 이 세계가 사람들의 생각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랑의 정도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에게 확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불타 오르면, 그는 이 세상보다 영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이런 영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자신이 이 나라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내면의 있는 것을 거론할 것이다.

그는 영의 나라를 유일하게 추구할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이웃에게 마찬가지로 이런 나라를 추구하고 항상 이 땅의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헛되지 않은 것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서 세상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뒤로 두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영의 나라와 연결되어 머물며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훨씬 빠르게 내적인 평화를 찾을 것이다.

사람은 이 땅의 세상을 통해 절대로 전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닫고 그가 항상 단지 세상 재물을 갈망하며 세상 소원이 성취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면, 그의 삶은 완벽하지 못하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의 혼은 세상이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혼은 영의 나라로부터 부유함을 제공받으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영의 나라의 땅에 들어서고. 혼은 비로소 진정한 고향을 찾고 혼은 비로소 영의 나라를 자신의 고향으로 깨닫는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영의 나라가 실제임을 깨닫고 혼이 한번 고향에 도달했으면, 혼이 자신을 한때 생성되게 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이 나라를 그에게서 더 이상 빼앗을 수 없음을 안다.

아멘

귀환의 축복.

B.D. No. 7680

1960년 8월 22일

내 피조물인 너희가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원하며 자녀로 성장해 나가 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축복은 없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런 축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창조 하였을 때 내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너희와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해 너희가 스스로 동인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줄어들지 않음을 너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내 원래의 성분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생성되게 한 능력이다. 사랑은 너희 모두가 존재하게 보장한다. 너희를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축복되게 해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끝없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으로부터 온전한 피조물로 생성되어 나왔다. 왜냐면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단지 온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너희는 피조 된 존재로서 내 손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 때 온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온전한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자유의지로 이런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녀를 내 곁에 두기 원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의 뜻이라면 그는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의지적으로 나를 떠난, 모든 신적인 성품을 반대로 바꾼,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이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변질되었다. 이런 일은 내 뜻이 아니었고 내 허용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 존재들이 다시 온전한 상태로 바뀌는 일이 가능함을 알았고 비록 끝 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런 다시 변화되는 일이 언젠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다시 원래 상태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들은 나 자신이 내 권세로 창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유의지로 나를 추구했다. 만약에 내가 그들을 내 올바른 자녀로서 내 심장에 안을 수 있을 때 나를 넘치게 행복하게 한다. 그들은 나와 연합되고 연합이 된 가운데 모든 영원까지 머문다.

이런 내 자녀들이 비록 귀환을 위해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하나가 되는 목표를 위해 가는 것을 보는 일이 나를 아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완성을 이룬다는 것을 어떤 존재도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지 않음을 안다.


비록 자유의지가 한 동안 존재들을 퇴보하게 할지라도 비록 자유의지가 변화되어 나를 갈망하게 되기까지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는 존재들이 타락함으로 시작 된 역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존재들을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 나게 도우려는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는다. 내 사랑은 항상 또 다시 피조물들에게 향한다.

하나가 되려는 내 갈망은 항상 증가 된다. 피조물 스스로 언젠가 나를 갈망하고 연합되길 추구하는 것처럼 언젠가 내 갈망은 성취 된다. 그러나 그러면 존재는 영원히 축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연합이 언제 이뤄지는 가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짐을 나는 안다. 나는 단지 내 피조물 자신들 때문에 나에게 귀환을 위한 시간을 줄여 주려고 한다. 만약에 존재의 의지가 아직 나에게 대적하고 있으면,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의 연합이 주는 축복을 느끼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오랜 동안 나에게 대적한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모든 크기로 불타오르고 존재는 절대로 나를 떠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는 비로소 무엇이 사랑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의해 생성 된 어떤 것도 멸망받을 수 없음을 계속하여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위해 내 곁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영원한 내 계획대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기 위해 모든 것이 온전한 가운데 서야만 함을 알 것이다. 창조주는 자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축복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될 것이다.

아멘

 든 영적인 구함은 너희에게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이 너희 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내 뜻에 따른 것이었다면, 너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함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했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이 땅에서 내가 너희의 지속적인 동행자가 될 수 있었다면, 너희는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빛과 축복의 나라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올바르게 생명력 있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의 나라에서 그에게 축복된 운명이 제공될 것이다. 번개와 같이 빠르게 그에게 깨달음이 제공될 것이다. 그는 진리에 합당한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혼이 그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빛을 가지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고 빛을 갈망하는 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데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먼저 밝은 빛을 발산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이런 일의 특성을 상상해 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혼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다. 게다가 혼들은 어떤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혼들은 슬퍼하지 않고 혼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즉시로 다시 서로 영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한 조건인 높은 단계의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항상 수고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혼들은 저세상에서 비로소 이런 성장 정도를 추구해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진리이다.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영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순간은 넘치게 축복된 순간이다.

이 땅에서 심각한 운명적인 일을 당한 너희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내 사랑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 너희가 자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증가시켜주기 원함을 생각하고 이 생각 가운데 머물라.

너희는 이를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복종하라. 진실로 축복이 너희에게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것을 뒤돌아보게 되면, 자신의 자녀들이 저세상에서 받게 될 운명에 심장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를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게 되고 나에게 대한 가장 깊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너희는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기간이 단지 짧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큰 고난을 짊어져야만 함을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와 하나가 돼야만 함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심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자주 너희의 진정한 고향을 생각할 것이다. 이 고향의 나라로부터 빛과 능력의 흐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보다 먼저 갔던, 만약에 그들의 성장 정도와 빛의 정도가 더 높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너희를 도와줄 존재들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빛을 전하게 허용받은 혼은 너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가 전적인 진리 안에서 머문다는 것이다. 왜냐면 빛이 있는 곳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오류가 오류로 들어 나기 때문이다. 이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거부할 수 없이 목표로 인도해야만 한다.

내가 너희 심장의 모든 생각들을 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한 지를 알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주어 지게 돌본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당분간 사용하는 수단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육신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혼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지 이 땅의 삶을 저세상의 더욱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저세상의 삶은 사랑 안에서 나를 섬기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이 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이 한때 생성되어 나왔던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의 집과 축복.

B.D. No. 5617

1953년 3월 9일

너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하고, 너희는 내가 한때 최고로 축복된 역사를 위해 너희가 머물게 한 곳에서 영원히 거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너희의 축복은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게 머물 것이다. 왜냐면 영원 가운데 내 나라의 영광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거대한 일이다. 너희가 이런 영광을 상상할 수 있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오로지 이런 영광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나라를 추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자유의지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축복이 너희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은 너희가 자유 의지로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이고, 너희는 언젠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연장시키기 원할지는 너희 자신의 자유이고, 너희 자신이 이 기간을 정한다. 너희 육신의 죽음의 순간으로 이미 이 기간이 다 지나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너희가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 모두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

내 이러한 말로 너희는 요청받는 것으로 느끼라. 내 나라의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려는 자극을 받으라. 최고로 영광스러운 너희의 운명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속하고 나를 모든 심장으로, 모든 혼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비슷하게라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단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

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너희는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너희 자신을 형성시켜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영의 나라가 영의 나라의 빛으로 너희를 영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 갈 수 있고, 나 자신이 너희를 마중 나가고, 너희를 모든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내 가까이에서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표현할 수 없게 축복되고 축복된 상태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빛의 나라의 축복. 기쁨과 환희.

B.D. No. 5666

1953년 5월 3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서 입은 형체를 영원히 벗고 가게 되는 영의 나라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모든 짐을 벗고 자유롭고 가볍게 느낀다. 빛의 나라가 그들을 맞이하고, 빛의 나라에 거하는 존재들이 마중 나와 그들에게 속한 영역으로 안내하고, 그들이 이제 살게 될 나라에서 느끼는 기쁨과 그 나라의 상태를 너희 사람들에게 표현해줄 방법이 없다.

이는 감각을 초월한 형체와 개념으로, 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서 이 땅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들은 즉시 영의 나라에 적응한다. 왜냐면 혼들이 이 곳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임을 알기 때문이고, 과거의 의식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혼들이 넘치게 축복되기 때문이고, 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를 향해 인도한 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의 나라에서 맞이할 축복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다. 왜냐면 사람은 육인 존재로서 그의 느낌에 제한이 있고, 만약에 그의 혼이 이제 이 영광 앞에서도 자신이 소멸되지 않고, 끊임 없이 느끼게 될 이러한 영광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면, 그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형성하고, 동시에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수 있게 자신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는 이제 영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이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복이고, 이 행복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행하도록 촉진한다. 왜냐면 혼이 이제 자신이 받은 대로 주려고 하기 때문이고, 행복하지 못한 존재들에게 다시 행복을 전하는 일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가 이 땅에서 혼이 성장하는 일을 보장하지만 그러나 의지가 신실해야만 한다. 의지는 심장의 깊은 곳에서 나에게 돌이켜야만 하고, 의지는 단지 빈 말로만 나타내서는 안 된다. 나는 항상 이런 말을 공허한 말로 깨닫고 벌써 신령과 진정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비록 입으로 거론하지 않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느끼지 않는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은 목표에 도달한다.

그가 기대하는 약속된 축복이 그가 고난에 순종하며 견디게 한다. 왜냐면 이 고난이 단지 저 세상 나라의 축복의 정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 어두운 영역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고, 빛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진실로 어떤 존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없고, 나와 내 사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는 없다. 나는 빛을 비취 줄 것이고, 최고로 행복한 상태가 되게 할 것이고, 모든 고난과 비참함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이 짊어진 것들을 천 배로 보상해줄 것이고,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싸운 사람들에게 왕같이 보상해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운명을 마련해줄 것이다.

아멘

빛의 상태.

B.D. No. 0977

1939년 6월 23일

사람들은 빛의 상태 가운데 사는 저세상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천 배로 크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세상의 기쁨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 때문에 넘치게 행복하게 해주고, 축복되게 해준다. 인간의 모든 상상력으로 진리에 합당한 비유를 통해 유사하게라도 표현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늘의 기쁨이 온전한 존재는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빛 상태에 있는 존재의 감수성은 이 땅의 모든 감수성보다 우월한다. 때문에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런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이는 이 땅의 기간 동안 존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머물러야만 한다. 이로써 상급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이 동인이 되어, 온전함을 추구하게 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저 세상의 행복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을 가장 큰 열심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선을 위해 선을 행해야 하고, 보상을 우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는 지혜롭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준비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아버지는 이 땅의 자녀들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상급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늘나라의 모든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게 하고, 너희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하라.

아멘

영의 나라의 축복.

B.D. No. 4578

1949년 3월 2일

육체의 걸형제를 벗고, 영원한 고향인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의 축복을 너희는 측량할 수 없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짐을 벗고, 어떤 무거운 것도 그들을 짓누르지 않고, 어떤 원수의 공격도 받지 않고, 두려움과 슬픔은 그들에게서 사라진다. 그들은 아름답고,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는 영광스러운 나의 창조의 의지의 작품을 보고, 빛이 충만한 분이 그들을 평안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 간다. 그들은 이런 환경 속에 거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들의 혼이 아직 묶여 있고, 세상의 물질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거친 후의 자유가 그들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들의 심장은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고, 사랑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사랑에 의해 뜨겁게 타오르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일만으로도 이미 축복 가운데 있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성취되는 일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과 전적으로 같은 성장 단계에 있는 혼들과 연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9/15

합하고, 그러므로 이런 연합이 축복을 높인다. 왜냐면 사랑으로 이룬 연합이 각각의 존재들의 능력을 높여주고, 이제 일하려는 갈망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이 결과로 나타나고, 이런 일이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주고, 항상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능력의 확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을 공급받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한다. 왜냐면 능력의 공급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의 피조물들은 나를 느끼고, 나에게 도달한다. 나는 그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빛으로 채워주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들의 내적 축복은 증가하게 된다. 왜냐면 나를 향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항상 이 갈망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땅의 어느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세상 사랑은 단지 영적인 사랑의 반사이고, 이 땅에서 이미 가장 갈망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제공되는 모든 영광은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 영광은 지속적으로 빛과 능력을 공급받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의 피조물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의 축복의 본질이다. 그들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항상 축복을 높여준다. 나는 혼에게 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재워주고, 항상 새로운 기쁨을 준다. 왜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장 9절) 와 같기 때문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일.

B.D. No. 7963

1961년 8월 10일

나는 너희를 축복되게 만드는 일 외에는 내 나라의 영광을 너희에게 선물하는 일 외에는 너희에게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일 외에 너희를 내 자녀로서 내 심장으로 이끄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없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언젠가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 없이 시간이 흘러 갈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한때 생성되어 나오게 한 나를 다시 자유의지로 갈망하게 되는데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리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 성품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시도한다. 내 성품은 최고로 온전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너희의 사랑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나를 계시한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 성품을 내 사역과 역사를 내 영원한 계획을 설명한다. 나는 너희가 단지 너희 눈을 열고 이 그림을 심장으로 영접하면,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게 될 그림을 너희들 눈앞에 두어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 관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 너희는 한때 너희의 깊은 곳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깨달음을 잃게 되었다.

이런 어두운 영적인 상태 가운데 너희는 인간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얻기 원하면, 나는 너희의 영을 밝게 해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가르쳐 주는 선명한 빛을 비춰야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일에 관해 너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해주었던,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부터 너희가 생성되어 나왔다는 것에 관해 너희에게 설명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어떠한지 현재 어떠한지 어떻게 되야 하는 지에 관한 깨달음을 줘야만 한다.

이런 모든 지식은 너희가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추구하게 해 다시 나와 하나가 되기 원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너희가 빛이 없는 상태를 바꾸어 내 일부분인 너희 안의 영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너희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어 가장 밝은 빛의 상태가 되는 일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의 목표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전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이로써 내가 너희에게 내 넘치는 사랑으로 선물해주기 원하는 모든 축복을 주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최종적인 귀환은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은 성공한 것이다. 이제 내 사랑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너희는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시도했던 소원은 성취가 된 것이다.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너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스스로 나를 대적해 반역했기 때문에 내 대적자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끝 없이 기간 동안 너희의 타락을 통해 나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축복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나를 내 모든 권세와 영광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축복은 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나에게 가까이 가기를 갈망할 것이다. 이 갈망을 너희는 항상 성취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을 어떤 사람도 귀로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제공 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 끝없는 사랑이 내 자녀인 너희를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향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사람의 귀도들은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단지 이 땅에 머무르는 한 그들에게도 제시되지 않아도 되는 저세상의 영광을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눈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땅의 감각으로도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러므로 인간의 혼은 가장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이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심지어 진리에 가까운 것도 없다. 이 상태는 축복된 상태이고, 계속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영의 눈에 자신을 드러내는 영의 세계의 모습이다. 모든 영의 존재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최고의 조화와 균형이고, 끊임없는 사랑의 일이고,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일이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인 힘을 받는 일이고, 끊임없이 행복하게 되는 일이고, 사랑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이는 묘사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런 영광을 단지 한번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은 상급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이런 저세상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하면, 그는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가 이 약속을 진리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에게 저세상의 축복된 상태에 관한 지식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추구하고, 약속때문에 선한 삶을 살려는 것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영광을 예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제 조건이고, 이런 사랑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야만 하고, 보상 때문에 행해지는 역사가 아니라, 유일하게 사랑의 정도가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보상에 대한 생각이 없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축복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혼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이고. 이런 행복은 사랑은 성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축복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의 축복과 행복.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비유는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런 축복을 비슷하게라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하는 시도를 하면, 어떤 것도 천국과 같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혼을 영원히 끝없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주님의 약속으로 만족해야 만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아는 일은 혼의 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불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 하고, 그러므로 그는 상급 때문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선하게 되어만 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존재가 영원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게 축복 된 일이다. 사람이 이 축복의 정도를 알면, 무엇에 축복이 있는지 알면, 사람은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고난을 감수할 것이다.

그에게 단지 사랑의 감정이 저 세상에서 결정적이라는 정도로 설명해줄 수 있고, 사랑의 감정이 없이는 축복을 생각할 수도 없음을, 사랑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랑은 저 세상의 빛의 존재들의 사랑의 정도에 견주어 볼 때,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랑을 어떠한 귀한 것으로 느끼고,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끼는 것을 어떠한 귀한 것으로 느끼고, 사람이 이 사랑을 한번 체험하면, 이 사랑을 갈망할지라도, 사람들 스스로 사랑이 축복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축복되게 하는 것은 단지 베푸는, 이로써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갈망의 대상이 단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경우에만 갈망하는 사랑은 축복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갈망하는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행복하게 하면, 영원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끝없는 사랑으로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와, 존재의 뜨거운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는 얼마나 더 행복할 것인가! 이런 갈망이 성취된 기쁨은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다시 묘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영접하면, 이 과정은 전적으로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원한 축복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영의 나라를 개관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영의 성장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영원한 영광을 알려주는 지식을 그에게 감춰두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축복. 영원한 영광.

B.D. No. 1792

1941년 1월 28일

빛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머무는 일은 존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다. 억압적이고 부담스러운 모든 일은 그에게서 제거되고, 성숙하지 못한 영의 존재의 어떤 공격에도 노출되지 않고, 존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림자나 어두운 상태가 없고, 기쁨과 조화와 가장 밝은 빛이 어디에나 있다. 비록 존재가 아직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도, 긴밀한 사랑과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존재를 채운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

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존재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할 수 있다.

존재는 자신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는 일이 필요하다. 빛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계속 전달하는 힘의 전달장소이다. 이를 통해 빛의 존재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게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이 땅의 인간은 빛의 존재의 활동이나, 힘을 요구하는 존재에게 힘의 전달하는 과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축복된 영원에 대한 생각은 그에게 하나의 환상이고, 그는 이런 환성을 버리기를 원하고,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적인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측정한다. 그는 이 땅의 밖에서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 저세상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창조물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민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빛의 나라를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은 이미 아주 많은 성장을 해야만 한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진실된 묘사를 거의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단지 희구하게 이런 새로운 지식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영역은 항상 단지 영원의 영광으로만 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광이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영원한 영광은 존재를 최고의 행복하다고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영광이 실제로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천상의 축복"과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그런 말의 진실성에 대한 진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 스스로 빛과 힘의 운반자가 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전에는, 그들이 빛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일은, 빛의 나라를 향한 통찰을 갖도록 허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와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의 거처가 되어야 할 그런 영역을 이해하는 일이 훨씬 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내면을 빛이 있게 하고, 밝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영적으로 보는일

B.D. No. 2284

1942년 4월 1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숨겼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위해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단지 선하게 행동하고 생각 할수 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은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자신이 동인이 된, 선한 삶을 전제로 하고, 보상을 위한 선한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동인이 선하다면, 즉 그가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했다면, 그의 혼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 이 땅에서 이미 그에게 영원한 영광에 대한 지식이 제공될 것이다. 초자연적 영역에 있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깨어나게 되고, 그림과 같은 인상이 전해져, 그의 영을 통해 혼에게 전달이 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 보는 일이고, 이를 위해 특정한 혼의 성숙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지식이 이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방식에서 바로소 나타나는 결과이다. 사후의 삶이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비할데 없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지식을 그가 얻을지라도, 이런 가르침이 강요가 아니다. 왜냐면 사람에게 이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이를 믿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유일하게 그에게 영원의 영광이 계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혼의 성숙의 증거인, 보는 일은 항상 육체의 삶을 마치기 직전에 인간에게 제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그를 미리 자신에게로 부르지는 않는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약간의 증거를 제공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냐면 세상의 눈으로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느 온전한 정도에 도달한 영의 눈이 단지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을 전해주는 일은 단지 어려운 일이다. 왜냐면 본 것이 이 땅의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고, 본 것을 비슷하게라도 설명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달된 인상이 이웃 사람이 깊이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는 곳에서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묘사조차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 상태의 저세상의 삶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은 하나님께 향한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강제로 바꾸지 않고, 그의 자유에 맡긴다.

아멘